

<기조연설 - 해양 탈탄소를 위한 블루 이코노미 전략>

임기택 | 제9대 유엔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오늘날 인류는 기후변화, 기술혁신, 지정학적 변화가 교차하는 새로운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인류가 배출한 탄소의 약 30%를 흡수하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입니다. 그만큼 해양은 인류의 생명선이자, 기후위기 해결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과 파리기후협정 이후, 국제사회는 해양을 더 이상 단순한 ‘자원의 보고(寶庫)’가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의 기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¹는 2018년 제1차 「온실가스(GHG)감축전략」을 통해 해운산업의 감축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23년 17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제2차 GHG감축 전략에서는 ‘2050년경 또는 그 이전까지 Net-Zero’ 달성을 명시함으로써, 해운·조선산업 전반에 중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여건에 따라 완급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탈탄소화와 디지털 전환은 해운, 조선, 항만, 기자재 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으로 대표되는 동남권 해양산업은 이러한 글로벌 변화를 선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해운, 항만, 조선, 조선기자재 인프라를 기반으로, 친환경 선박 기술과 디지털 해상물류 등 미래형 해양산업 전환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과 같은 새로운 해상 경로의 개척은 한국과 동남권 해양산업에 또 다른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해양 질서를 준비하는 국가와 지역만이 다가오는 블루이코노미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

¹ **국제해사기구(國際海事機構,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1948년 3월 6일 채택되고 1958년 3월 17일에 발효된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948)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해상에서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책임지는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 기구이다. 국제교역에 종사하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서 정부 간 상호협력 촉진을 위한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기구로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및 통제와 관련하는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바다는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영해와 영해에 준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어떤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공해로 구분된다. 이중 공해를 지나는 선박에 적용되는 규정이 IMO에서 만드는 국제해사법이다. IMO 사무총장은 "바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며, UN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국제기구이다.

화는 범지구적 Collective Leadership을 필요로 하며, 한국의 동남권이 그 리더십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로 이러한 글로벌리더십이야말로 대한민국 해양산업을 선진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포럼이 바로 그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기후와 경제, 그리고 인류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잇는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